

Le Corbusier, W. Grupius, F. L. Wright의 주거건축에서 공용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mon Space Design for the Housing Architecture
of Le Corbusier, W. Grupius, F. L. Wright

정재욱* / Chung, Jae-Uk

Abstract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interior of living space have shifted from the spacial structure of existing wall partitions to visually and spatially continuous open space. And these open space can be recognized mostly in the common space of housing architecture of living, dining, and kitchen space composi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and compositional method, the works of Le Corbusier, W. Grupius, and F. L. Wright in their living, dining, and kitchen space design have been analyzed from the collected materials to make evaluation for the similarities and significance of their space compositional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is to analyze space composition and design factor of the modern housing space of Living, Dining, and kitchen space variation and character of open space design factor for the practical use as an index of designing contemporary living space.

키워드 : 거실 · 식당 · 주방 공간, 매개공간, 열린공간(open space), 공간구성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역사를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로 분리하여 살펴볼 때, 산업혁명 이전의 건축은 주로 어떠한 사조를 종교나 기득권층(귀족, 왕 등)이 만들어 냄고 그 사조를 따라 같은 유형의 건축물을 형성해 내는 것이라면, 산업혁명 이후의 건축은 이전시대와는 달리 신홍세력으로 등장한 시민층과 건축가들에 의해 건축사조가 형성되고 어떠한 형식의 건축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건축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철과 철근콘크리트의 등장으로 기술도 많이 진보·발달하였고, 산업의 발달은 새로운 형식의 주거를, 전쟁과 도시의 발달은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량주택을 요구하였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 기계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건축가들에게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근대 운동의 선구자들은 화려함을 부정하

였으며 그들이 진보적인 것으로 여겼던 19세기의 생활과 기술의 요소들 즉 속도, 전기, 역사적인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건축의 형태는 솔직하고 단순해야 하며 환경에 대한 기계의 영향을 인식하는 등 단순한 건축을 선호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기술의 진보는 재료의 발달에 힘입어 그 이전시대에 보여지던 구조에 의한 공간 형성은 구조와 건축공간의 독립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건축공간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주거건축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Le Corbusier의 도미노 시트로앙 구조에 의한 공간형성 등 기존과 다른 열린공간¹⁾(open space-이하 열린공간)의 공간형성이 나타났다.

주거건축의 공간들이 열린공간화 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 시대의 벽으로 구획된 실들에 의해 다양성이 적었던 공적공간들의 결합형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서 연구하고자 하는 주방·식당·거실 공간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1) 열린공간이라는 기준은 여기서는 실들(침실 등)을 제외한 공적공간인 주방·거실·식당·홀(hall) 등의 공간들이 서로 어떠한 형식(시각적·공간적)으로든지 공간적으로 폐쇄되어 있지 않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 정회원,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이에 20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주거건축에서 보여지는 공적공간(주방·식당·거실)의 공간형식 유형을 조사·분석하여 어떠한 디자인 방식을 사용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산업혁명 이후 즉 근대건축인 1900년대 이후 주거건축으로 Le Corbusier, Walter Gropius, Frank L. Wright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한다. 위 3명의 건축가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첫째, 주거건축을 주로 다룬 건축가이며

둘째, 일정한 틀 안에서 여러 방식의 공간조합을 나타내었으며

셋째, 주방·식당·거실 공간의 조합에 있어서 건축이념에 따른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Le Corbusier의 건축은 기계미학으로서 도미노와 시트로앙의 구조체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와 독립된 다양한 공간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Walter Gropius의 건축도 Le Corbusier의 건축배경과 유사한 기계미학에 중심을 둔 시각적으로 직선구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건축공간구성에 유념하였으며, Frank L. Wright의 건축은 자연과의 유기성을 강조하는 건축으로서 어떠한 구조체를 중심으로 수직·수평의 공간분할을 통한 공간을 형성하였다.

이렇듯 이 3인의 건축가들은 추구하는 건축사상이나 건축 배경이 달랐음에도 그들의 주거건축에서 나타나는 거실·식당·주방 공간의 공간조합형식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거실·식당·주방 공간조합형식이 유사하다²⁾고는 하나 그 공간조합을 이루는 공간구성 디자인 방식은 각자의 건축사상과 배경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에, 3인 건축가의 공간구성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특징들을 조사·분석하여, 공간을 형성하는 공간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거실·식당·주방 공간구성 디자인 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거실·식당·주방의 공간을 분할하는 공간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방법을 간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Le Corbusier, Walter Gropius, Frank L. Wright의 각 주거건축에서 거실·식당·주방 공간을 조사·분석한다.

둘째, Le Corbusier, Walter Gropius, Frank L. Wright 각 거실·식당·주방 공간구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형성방식을 추출하여 각 유형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본다.

셋째, 추출된 특징을 통하여 나타나는 디자인의 형식 및 방법을 조사, 정리하여 디자인 개념화하여 나타낸다.

2. 주택에서 공간구성의 의미와 주택평면과의 상관성³⁾

건축에 있어서 공간구성의 의미는 건축가가 공간을 형성하고 조

2)주거건축에서 거실·식당·주방 공간의 인접도, 공간배치 등이 기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3)전경화, 실의 연계관계 분석에 의한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공간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8호, 1999년 3월, pp.97-98

직할 때 공간요소의 성질들 즉 각각의 크기와 모양, 사용자와 기능, 인간의 움직임 등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하나의 체계에 의해 서 공간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함을 뜻한다. 따라서 공간을 구성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한다는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공간구성은 공간의 확장, 수축, 유동, 정지 등 공간적 표현의 매체로서, 인간의 감정적 속성과 관련된 역동적 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공간구성은 한 시대의 문화적·사회적 의미와 관련된 문화적 결과물로서 이해되기도 한다.

공간구성이 갖는 이러한 특징은 주택에서도 적용된다. 현대 주택 설계에서 공간단위인 각각의 실에서부터 그것들의 조직체계는 각각의 거주형태에 있어서 시대성과 역사성과 결부되어지며, 거주자 자신의 요구와 사회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주거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행위가 어떠한 성격이나 내용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의 성격을 분류할 수 있다. 공간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서 동적·정적 구역, 공적·사적 구역, 그리고 주간·야간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구역에 해당하는 여러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간들을 생활방식에 대응시켜 조직화함으로써 주거의 공간구성이 이루어지는데, 각 공간들을 결합시켜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주요한 방법으로는 구역에 따라서 각 공간들을 조합하는 방법과 동선에 따라서 공간을 집합하고 분해하는 방법이 있다. 구역에 따라서 구획하는 방법은 각 공간들을 기능에 따라 공통된 성격을 갖는 공간끼리 집합시킨 후, 각 그룹들을 조건에 맞는 위치에 배치시키는 것이다. 동선에 따르는 방법은 사람이나 물건들이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생활의 모습에 주목하여 이러한 이동들이 원활하도록 공간과 공간의 결합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유사한 기능을 갖는 공간끼리는 근접시키고 이질적인 성격의 동선은 교차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다.

주거건축에서 평면은 공간구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일차적인 것이다. 주거의 평면은 주거의 물리적 구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공간의 관계와 공간간의 연결 및 기능을 파악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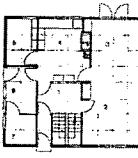
2.1. Le Corbusier, W. Gropius, F. L. Wright 주거건축의 공간구성 특성

Le Corbusier, Walter Gropius, Frank L. Wright의 주거건축 공간구성은 건축가들의 건축개념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건축 공간구성은 건축가의 초기 작품에서 후기로 갈수록 시대상과 맞물려 변화가 생기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유사한 유형의 건축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3인 건축가들의 공간구성 방식을 도면을 통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Le Corbusier의 주거건축은 규격화된 사각의 형태 안에서 개념에 따라 공간들이 분할되어 나타난다. 초기의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표 1> 평면을 통한 공간구성특성 비교의 예

건축가	공간 구성의 특성(공적공간)
Le Corbus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이 상하좌우 모든 방향으로의 시각적 연계를 이룸.
W. Gropi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격화된 틀 안에서 공간 구성 을 함
F. L. Wr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체를 중심으로 공간의 분화 가 이루어짐.

공간구성은 구획된 실4)외의 공간들은 서로 공간적 흐름상 열려있는 형식으로 나타나며, 공간들이 시각적 연계를 이루고 있다.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은 층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고, 공적공간의 경우 상하 열림(void)을 통하여 공간의 시각적 연계를 이루고 있다. 즉, 공간을 상하좌우 모든 방향으로의 열림을 통하여 형성하고 있다.

Walter Gropius의 주거건축은 대량생산에 수용되는 규격화된 틀 안에서 정형화된 형식의 공간구성이 주로 나타난다. 대부분 규격화된 틀 안에서의 최대한 능률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으며, 구획된 실을 제외한 공적공간에서 시각적 연계뿐 아니라 모듈에 따른 공간 조합을 이루고 있다. 규격화된 틀, 즉 모듈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공간구성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Frank L. Wright의 주거건축은 공간이 유동적이며, 전체적인 형태는 중심 핵을 둘러싼 축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의 작품의 경우 실로 공간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적공간의 공간구성 형식은 하나의 커다란 닫힌 공간 안에서 공간이 서로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형성되고 있다. 즉, 공간이 어떠한 구획된 실들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모든 공간이 열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위 3인의 건축가는 각자의 건축개념에 따른 디자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하나의 열린공간 안에서 다양한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공적공간인 거실·식당·주방 공간의 공간구성에서 주로 나타나며, 하나로 형성된 열린공간을 분할하는 공간구성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4)Le Corbusier의 주거건축에서 시각적·공간적으로 구획된 실로 이루어진 사적공간(시각적으로 열린 경우도 상당수이다)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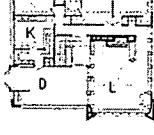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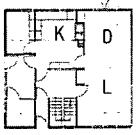
2.2. 거실·식당·주방 공간 구성 분석 방법

Le Corbusier, Walter Gropius, Frank L. Wright의 주거건축 공간은 각자의 건축개념과 건축 언어에 따른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주거내부의 거실·식당·주방 공간구성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3인 건축가들의 거실·식당·주방 공간구성을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 공통되는 기준의 틀<표 2, 3>을 형성하고, 형성된 틀 안에서 공간구성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공통된 요소를 찾아보자 한다. 3인 건축가의 공간구성 요소 추출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Le Corbusier, Walter Gropius, Frank L. Wright 주거건축에서 거실·식당·주방 공간구성을 분석함에 있어 사용자의 동선 이동방식과 공간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거실·식당·주방 공간을 사용자의 동선 이동방향에 따라 ①방향 이동방식 ②다방향 이동방식으로 구분하였는데 <표 2>와 같다.

<표 2> 거실·식당·주방 공간의 동선 이동에 따른 분류

	1방향 이동방식	다방향 이동방식
이동경로	거실→식당→주방	거실·식당·주방
방향성유무	방향성(○)	방향성(×)
공간구성형태	 Wright, Hollyhock House	 Gropius, Studio House
공간구성특징	LDK 공간에서 정해진 방향으로의 이동만 가능함	LDK 공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의 이동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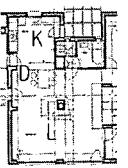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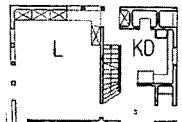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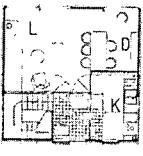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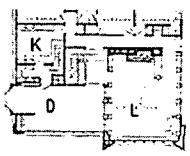
①방향이동방식은 거실·식당·주방의 공간이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으로서 거실→식당→주방 또는 주방→식당→거실 순서로 사용자의 이동경로가 결정되는 경우이고, ②다방향 이동방식은 거실·식당·주방 공간구성에서 사용자의 동선의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고 공간들이 하나로 통합·조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보통 거실·식당·주방 공간구성이 일직선형으로 되어있거나, 공간의 열고 닫힘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형성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공간의 열림과 닫힘에 따라 이동해야한다. 후자의 경우는 보통 거실·식당·주방 공간구성이 어떤 일정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며, 공간의 열고 닫힘에 따라 다양한 방향성이 존재하고 있다. 사용자는 공간의 이동이 자유롭게 된다.

두 번째로 거실·식당·주방 공간의 독립성에 따라 ①개방형 ②간접개방형 ③독립형으로 구분하였는데 <표 3>과 같다.

①개방형은 거실·식당·주방이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

<표3> 거실·식당·주방 공간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공간구성특징	공간구성형태
개방형	거실·식당·주방 공간 공유	
간접 개방형	거실공간 독립 식당·주방공간 공유	
	거실·식당공간 공유 주방공간 독립	
독립형	거실·식당·주방 공간 독립	

이고, ②간접개방형은 거실·식당은 하나의 공간이고 주방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와 거실은 독립되고 식당·주방 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며, ③독립형은 주방·식당·거실의 공간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 독립성의 여부는 개구부⁵⁾가 있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로 제한하여 시각적으로 독립되어 있다하더라도 개구부가 있는 벽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2.3. 거실·식당·주방 공간 구성의 특징

앞 절에서 거실·식당·주방 공간 연계 방식을 동선에 의한 방식과 공간의 독립성 여부에 의한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두 방식을 이용하여 Le Corbusier, Walter Gropius, Frank L. Wright의 주거건축 평면에서 나타나는 거실·식당·주방 공간의 특징들을 살펴보자 한다.

거실·식당·주방 공간 형식이 독립된 주방에 거실·식당 공간이 연계된 경우 거실·식당 공간 구획요소를 살펴보면, 3인의 건축가들이 가구의 배치라든가 공간에 사용하는 구조물의 형태가 다르긴 하여도 공통된 요소⁶⁾를 가지고 공간을 분할하고 있었다. 즉, 3인의 주

5) 여기서는 공간 사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문만을 의미한다.

거 건축에서 보여지는 거실·식당·주방 공간은 각 건축가들에 따라 디자인 형태, 사용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인 공간구성이라든가 공간 디자인 수법이 비슷하였고, 공통된 공간구성 디자인 특징들이 보여졌다.

공간구성 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공간조합 형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Le Corbusier, Walter Gropius, Frank L. Wright의 거실·식당·주방 공간구성을 동선이동에 따른 독립성 여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사용자의 동선 이동에 따른 공간구성은 동선의 이동뿐 아니라 공간의 조합형식과도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1방향 이동방식에서 ①개방형, ②간접개방형, ③독립형에 따라 공간구성을 살펴보고, 또 다방향 이동방식에서 ①개방형, ②간접개방형, ③독립형에 따른 공간구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알 수 있었다. 공간구성 요소가 각 공간을 조합하는데 있어서

첫째, 사용자의 동선이동이 1방향의 경우보다는 다방향의 경우가 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둘째, 공간의 독립성에 따라서는 간접개방형인 주방이 독립되고 거실·식당 공간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와 거실·식당·주방 공간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개방형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양한 공간구성 요소는 동선의 이동이 어떠한가 보다는 공간이 어떻게 독립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공간의 독립성에 따른 간접개방형 중 주방독립형과 개방형의 평면을 중심으로 공간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4, 5>와 같다.

개방형의 경우,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개구부가 있는 벽으로 공간이 구획되는 것이 없으므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 하나가 공간들을 어떻게 조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방향성을 가지는 공간구성의 경우 개구부가 없는 벽이라든가 구조물 등의 공간구획요소를 공간마다 설치해야하는데 비하여, 다방향성의 경우에는 공간이 서로 열려 있으므로 공간구획요소를 적절한 위치에 한가지만 배치하고서도 다양한 방식의 공간 조합을 나타낼 수 있다.

간접개방형의 경우, 주방 독립형과 거실 독립형이 있는데 나타나는 공간구획요소는 거의 비슷하였다. 다만 주방 독립형이 더 많이 공간 구성 방식으로 사용되었는데, 주방이라는 곳이 냄새 등의 요인으로 인해 독립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방 독립형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거실·식당·주방 중 하나의 공간이, 즉 주방의 공간이 개구부가 있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공간 거실과 식당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즉, 거실과 식당은 시각적으로는 열려 있으나 공간적으로는 구획되어지는 여러 디자인 요소를 가지게 된다. 구조물, 가구, 개구부가 없는 벽 등의 요소가 사용되어 공간을 구획해 주고 있다. 간접개방형에서도 개방형과

6) 거실·식당 공간을 구획하는 구성요소로서 가구, 구조물(난로, 기둥, 상부 구조물, 등), 단차이, 공간의 크기나 위치의 변화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3인의 건축가가 거의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4> 간접개방형을 통한 공간구성 요소 분류

공간구성 요소 분석	
Corbusier, Besnos house D · L 공간분리 없음 K 개구부가 있는 벽	Wright, Studio house 구조물(중심 구조체를 통해 나온 벽) 개구부가 있는 벽
Gropius, Abele house D · L 구조물(비내려벽), 주름문 K 개구부가 있는 벽	Wright, Kilbuck house 단차이, 구조물(난로) 개구부가 있는 벽
Wright, Robie House D · L 구조물(계단, 난로, 구조벽) K 개구부가 있는 벽, 매개공간	Corbusier, Cirrohan 구조물(원형 계단), 가구(실 구성 가구) 개구부가 있는 벽
Gropius, Ford house D · L 고정가구 K 개구부가 있는 벽	Gropius, Clark house 구조물(난로) 개구부가 있는 벽
Gropius, Sills house D · L 가구, 구조물(난로) K 개구부가 있는 벽	Corbusier, MAS 조립식주택 가구(실 구성 가구) 개구부가 있는 벽
Gropius, Levy house D · L 가변식 벽 K 개구부가 있는 벽, 홀(통로)	Wright, Boynett house 구조물(난로) 개구부가 있는 벽, 홀(통로), Utility

<표 5> 개방형을 통한 공간디자인 요소 분류

공간구성 요소 분석	
Gropius, Chamberlain house 가벽, 구조물(난로, 상부구조물)	Corbusier, Fueter 교수의 집 구조물(난로), 고정가구
Gropius, Standard 고정가구, 가구(실 구성 가구), 홀 개구부가 있는 벽	Gropius, Aluminum city terrace 개구부가 없는 벽

* 표의 해석 : 도면예시(상), KDL 공간구성 요소
<표 4.5의 기준7>

마찬가지로 공간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 하나의 공간구획 요소로 다양한 공간구성이 보여지고 있다.

독립형의 경우, 모든 공간들이 개구부가 있는 벽들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열림 속에서의 공간구성은 볼 수 없지만 그 닫힌 공간들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는가에 따라 다른 공간구성을 볼 수 있다. 사용자의 이동에 따른 공간배치가 공간구성에 중요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실들이 인접하여 위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들의 배치가 떨어져 있을 경우 홀이나 그 외 다른 공간을 경유하여 동선의 이동이 보여지는 등 공간 구성을 사이공간이 주요 공간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거실·식당·주방 각각의 공간들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실과 식당

- ① 공간이 독립된 경우
 - 개구부가 있는 벽
 - 매개공간(홀, 복도, 계단 등의 공간)
- ② 공간이 연계된 경우
 - 완전개방
 - 구조물(단차이, 개구부가 없는 벽, 난로 등)
 - 가구(고정가구, 실 구성 가구 등)

7) 공간구성 조합 디자인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다양한 동선이동과 간접개방형·개방형의 공간독립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는 공간을 구획하는 디자인 요소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표에 삽입된 도면은 3인의건축가 도면 중에서 동일한 디자인 형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도면상의 기교가 적은 것을 택1 하였다.

표에서 보여지는 설명은 표3의 경우 공간의 통합된 형태(상단)와 공간이 독립된 형태(하단)에서 보여지는 공간구성 요소를 나타내고, 표4의 경우는 공간의 통합된 형태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성 요소이다.

* 표의 해석 : 도면 예시(상), DL의 공간분리 요소(종), K 공간독립요소(하)

- 매개공간(홀, 계단, 복도 등)

(2) 식당과 주방

① 공간이 독립된 경우

- 개구부가 있는 벽

- 매개공간(홀, 계단, 복도 등)

② 공간이 연계된 경우

- 완전개방

- 구조물(단차이), 개구부가 없는 벽 등)

- 가구(고정가구, 실 구성 가구)

- 매개공간(utilty공간, 복도 등)

(3) 주방과 거실

① 공간이 독립된 경우

- 개구부가 있는 벽, 개구부가 없는 벽

- 매개공간(홀, 계단 등)

② 공간이 연계된 경우

- 구조물(구조벽, 가변식 벽, 난로, 상부구조물 등)

- 가구(고정가구, 실 구성 가구)

- 매개공간(복도 등)

거실·식당·주방 공간을 동선의 이동과 공간 독립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공간 구성에 따라 살펴보았지만, 공간조합이라든가 공간구성요소가 서로 공통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거실·식당·주방 공간의 공간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거실·식당·주방 공간 구성을 함에 있어서 공간의 조합형식과 공간의 독립성이 공간구성을 함에 있어 디자인 요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각각의 공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시키고 있는가의 여부가 디자인 요소에 작용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간구성을 하고 있으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방식이 매개공간⁸⁾을 이용한 공간연계방식이다. 이 매개공간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주방과 식당 사이공간이다. 이 때 사용된 매개공간은 주로 또 하나의 작은 주방이나 utility, hall 등의 공간으로 그 시대의 특징일 수도 있는 또 하나의 주방 공간(또는 서비스 공간)에 의해 주방과 식당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 외 공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형식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또 ①하나의 공간이 있는 경우, ②시각적 연결이 차단된 경우, ③시각적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①하나의 공간이 있는 경우는 공간과 공간사이에 삽입된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고, ②시각적 연결이 차단된 경우는 구조체, 고정된 가구들에 의해

8)매개공간이라 함은 어떠한 공간을 형성하고 공간을 분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켜 주는 모든 요소를 나타낸다. 즉, 어떠한 공간에서 공간이 삽입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구획된 벽이 아닌 요소로 공간이 분리되면 그것은 매개공간이 되는 것이다. 매개공간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떠한 공간과 공간 사이에 삽입된 공간을 나타내나 여기서는 그 외 모든 요소를 포함한 뜻으로 사용한다.

사용자가 일어났을 경우 다음 공간이 차단된 것이고, ③시각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실의 구성 가구, 단 차이, 실의 크기 변화, 인테리어 소품 등에 의한 것이다.

3. 거실·식당·주방 공간구성에서의 매개공간

거실·식당·주방 공간구성 디자인요소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매개체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공간들을 어떻게 연결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공간 연계를 함에 있어서 공간과 공간 사이에서 공간을 구획해주는 요소를 포괄적으로 매개 공간이라 하였다. 즉, 매개공간이라 함은 어떠한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거쳐야하는 또 다른 하나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공간을 인식하게 해주는 모든 공간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주방·식당·거실의 공간 구성에서 나타난 매개공간의 형식은 ① 하나의 공간이 있는 경우, ②시각적 연결이 차단된 경우, ③시각적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 여러 디자인 요소가 보여졌다. 이것을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디자인 요소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매개공간의 디자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공간을 경유하는 것

- 부엌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utility의 공간
- hall, 계단, 복도 등의 통로적 역할을 하는 공간
- 외부와 인접하거나 외부인 공간

(2) 구조물에 의한 것

- 개구부를 가지고 있는 고정된 벽
- 공간 구획만 할 수 있는 고정된 벽이나 구조틀, 기둥
- 단차이
- 난로 등의 설비물
- 가변적 공간구획 요소(주름문, 커튼 등)

(3) 가구에 의한 것

- 고정된 가구(fixed furniture)
- 실의 용도에 맞는 가구
- 그 외 인테리어 가구

(4) 시각적인 것

- 색깔, 패턴, 재료 변화 등

이러한 매개공간의 디자인 요소들은 공간들을 조합하는 형식(동선에 의한 공간 연계, 공간의 독립성 요소)에서 공간을 독립된 요소로 구획하지 않고도 시각적으로 연계된 공간을 구획하는데 주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매개공간의 요소는 각각의 것이 독립되어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조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즉, 공간을 시각적으로 구분해 주는 시각디테일⁹⁾과 같이 공간 구성의 디자인 요소로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9)패턴, 카페트, 재료변화 등

4. 결과

Le Corbusier, Walter Gropius, Frank L. Wright의 주거건축을 중심으로 주택평면 안에서 거실·식당·주방 공간구성 디자인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Le Corbusier, Walter Gropius, Frank L. Wright 3인의 건축가는 주거건축의 디자인 개념, 디자인 방법은 달랐지만 거실·식당·주방 공간 구성에서 나타나는 공간조합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가 되면서 주거건축의 공간들은 개구부가 있는 벽으로 구획되던 기존의 공간구획 방식에서 공간들이 열린공간화 되면서 공간구획 방식이 달라지게 되었다. 벽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연계된 공간구성 형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간이 열린공간화 되면서 공간은 기존의 벽이 아닌 다른 공간구성 디자인 요소로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공간구성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간구성을 함에 있어서 공간을 어떠한 벽체로 구획하는 것만이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은 시각적으로 열려 있다 할지라도 공간구성 디자인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다른 공간을 연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거실·식당·주방 공간 구성에서 매개공간이라는 요소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매개공간의 디자인 요소는 (1) 다른 공간을 경유하는 것, (2) 구조물에 의한 것, (3) 가구에 의한 것, (4) 시각적인 것이 있다. 이 디자인 요소는 인접된 공간을 통하여 공간이 구획되거나 구조물·단차이·설비물·가구 등에 의해 시각적으로는 연계되나 공간적으로는 구획되는 공간구성 형식을 나타내고 있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추출한 공간 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매개공간의 디자인 요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합하여 디자인하는가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Le Corbusier, Walter Gropius, Frank L. Wright의 주거건축에서 추출된 공간구성 디자인 요소를 이용하여 공간구성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열린공간에서 공간 구성 디자인 요소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1. 니콜라우스 페브스너 저, 유럽 건축사 개관, 金福地 ...[等譯], 泰林文化社, 서울, 1993
2. Joedicke, Jürgen, 건축의 공간과 형태, 윤재희, 초판, 세진사, 서울, 1995
3. Golding, John, Cubism, 큐비즘, 황자우, 초판, 열화당, 서울, 1988
4. Kenneth Frompton 著, 現代建築, 鄭英喆, 尹哉熙 共譯, 世進社, 서울, 1992
5. Stanislaus Von Moos, 르 코르뷔제의生涯 : 建築과神話, 崔昌吉, 茵明海 [共譯], 기문당, 서울, 1997
6. Willy Boesiger 저, Le corbusier, obrasy proyectos Works and Projects, Works and Projects series, Barcelona. 1983
7. 윌터 그로피우스 저, 生活空間의創造, 崔俊植 譯, 韓國理工學社, 서울, 1979
8. Paolo Berdini, Walter Gropius, obrasy proyectos Works and Projects, Works and Projects series, Barcelona. 1983
9. Frank L. Wright 저, 現代建築家シリーズ, 第1,2卷, フランク ライド ライト作, 美術出版社, 東京, 1968
10. 이현수, 정승현, 최진원, 현대주택 평면의 유형화와 평면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0권 제2호, 1999.5
11. 전경화, 실의 연계관계 분석에 의한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공간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18호, 1999.3

<접수 : 2000. 2. 1>